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비구니 스님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이의 학교를 졸업한 스님을 군승으로 활용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군 포교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갈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이하 군종교구)의 출범을 6월말로 앞두고 포교원이 6월 9일 개최한 제2차 포교정책연찬회에서 발표된 의견이다.

이번 연찬회 토론자로 나선 정범 스님(불교신문 주간)은 새로운 군 포교 인력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종단은 동국대 뿐만 아니라 타 대학 출신 스님과 비구니 스님을 군 포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화 법사(군승회의 의장)는 이에 대해 "가톨릭은 이미 군 선교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기 위해 수녀를 활용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교연찬회에 참관 중이던

중앙승가대 포교학과 원종 스님은 "여성 성직자로서 비구니 스님이 군포교에 강점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며 군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신세대 장병 '맞춤포교'로 공략해야

조계종 포교정책 연찬회에서 장성화법사 주장

정범 스님은 "군종교구 발족을 앞두고 군 법당에 대한 태도 전환과 진각종 등 타종단 지원이 현격히 줄어들어 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성화 법사도 "조계종이 타종단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화 법사는 이날 연찬

회 발제문을 통해 변화하는 군 포교 환경에 맞는 '방법론 개발'을 주문했다.

"장병 포교현황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 법사는 "6월 출범하는 군종교구는 애니메이

때 한국불교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범 스님은 군 포교의 장래가 신임 군종교구 집행부를 어떻게 꾸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군종교구 최고 심의의결

당을 지정해 제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일백 스님(연등국제선원 주지)은 "체계적인 군 승 교육 시스템을 확립할 때"라고 제안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군승후보생과 예비군승에 대한 교육은 군 포교의 막중한 책임을 진 군승을 키워내기에 부족한 면이 많았다"며 "군종교구는 군승을 비롯한 군포교 자원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백 스님은 또 "단일한 교리와 수행 방법론, 의식통일 등을 위한 메뉴 파일의 제작도 신경써야 한다"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승에 대한 엄격한 선발권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은 스님(교양정책과 주지)은 군승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백 스님은 또 "단일한 교리와 수행 방법론, 의식통일 등을 위한 메뉴 파일의 제작도 신경써야 한다"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승에 대한 엄격한 선발권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은 스님(교양정책과 주지)은 군승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계종은 제2회 조계종도의회사 다례재를 6월8일 조계사에서 5백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 사진=남동우 기자

조계종 조계종도의회 다례재 봉행

8일 조계사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 다짐

제2회 조계종 조계종도의회 다례재가 6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다례재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의 행장을 소개에 이어 조계종 원로회회의 부의장 보성 스님은 "오직 정법의 당간(幢竿)에 풍번(風幡)을 더욱 높이 거양(擧揚)해 만세(萬歲)에 빛나게 해야 지은(知恩) 보은을 했다 할지니, 모든 조계종도는 국사의 분신처(分身處)를 알아야 출신할로(出身活路)를 얻을 것이니 각자의 입각처(立脚處)를 살필지어다"라고 발언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추

모사를 통해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이문답지 못한 일은 우리가 아직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부족한 탓이어서 참고무량(慙愧無量)할 뿐"이라며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시비마저 일거에 발거(拔去)하고 오직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종단의 면모를 갖추는데 가일층 정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부 상단불공(佛食) 2부 법회 순으로 진행된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환안·초우·허정 스님,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는 것은 종단운영의 책임 있는 위치에서 해야 할 바른 처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유철주 기자

보광사 가처분 '기각' 현중 스님측 본안소송

서울 우이동 보광사 사건과 관련, 현중·환은 스님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이 5월 31일 기각됐다.

이번 결정과 관련 선학원측은 "승가전통의 원용살림으로 갈등과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 정관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았음이 밝혀졌다"고 7일 주장했다.

그러나 현중 스님측은 "정당한 창건주 권한 승계에 대한 논의는 가처분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라고 8일 반박했다.

한편 현중 스님은 5월 11일 중앙지법 민사 17부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

남동우 기자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개설

28일부터 불교학과 10명 신입생 모집

조계종종립 승가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총장 종범)에 대학원(원장 정인)에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이는 2002년 11월 대학원 설립 후 3년여만의 일로 스님 전문 정규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학사-석사-박사까지의 학제를 모두 완성한 것.

2005학년도 후기 박사과정 신입생은 불교학과(불교·역경·실천불교(포교)학 전공) 10명을 선발하며, 이르면 2007년 하반기부터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승가대는 이를 위해 이미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전일 교원(7명)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김포캠퍼스 내 유휴 교육시설 등의 활용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사과정 신설을 준비한 학교당국의 의욕과는 달리 현재 중앙승가대 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조계종 교육위원 한 스님은 "종단의 정체성을 밝히는 종립대학에 최고급학위과정이 생긴 만큼 우수교수진 확보와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대학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앞으로 승가교육발전을 위한 학문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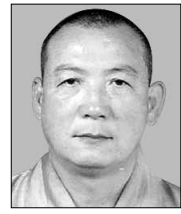
한편, 중앙승가대는 이번 2학기부터 석사과정 정원을 30명으로 10명 증원했으며, 2006년 3월에는 불교문화재관리학과 불교문화학과 포교

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등 총 4개과 50명 정원으로 특수대학원(재가자 입학가능)도 문을 연다. 031)980-7777

조유수 기자

선암사 주지에 금융 스님

태고 총림 선암사 제 26대 주지에 금융 스님(정종장 원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부주지에는 승조 스님(선암사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김원우 기자

6월 10일 선암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에서 만장일치로 주지에 선출된 금융 스님은 "종단의 수행풍토를 조성하는 수 사찰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스님은 1941년 생으로 55년 성환(석운)스님을 은사로 수계독도했다. 59년 선암사 강연 수료했다. 1987-2001년 태고종 광주전남 총회회장, 2000년 태고종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장흥 장원사 주지이다.

패가 불안된 평택 2함대 사령부 영내 법당 해운사에서 천도재를 올리고, 한국형 구축함 을지문덕함으로 이동, 제문 낭독과 해상 현화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천도재에는 전사자 6명의 유가족, 357 전우회 장병 20명, 해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강유신 기자

서해교전 3주기 위령제 제2함대 해운사서

서해교전 3주기를 맞아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한 6명의 전사자를 추모하는 해상위령제가 봉행됐다.

해상 위령제는 6월 24일 6인의 위

령제 2함대 해운사서

서해교전 3주기를 맞아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한 6명의 전사자를 추모하는 해상위령제가 봉행됐다.

해상 위령제는 6월 24일 6인의 위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 법진 스님(왼쪽 첫번째) 등이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을 개원하고 6월 10일 현판식을 거행하고 있다.

선학원 '한국 불교선리연구원' 개원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도형)이 선학원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을 중앙선원 2층에 개원하고 6월 10일 현판식을 거행했다.

선리연구원은 근현대 한국불교사는 물론 선학원 설립조사와 선사들의 역사사료 발굴 및 사상을 지속적

으로 연구한다. 이를 위해 선리연구원은 매년 1~2회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총서 발간, 우수논문공모 및 월례발표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경 '선학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드립니다.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병의원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문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 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병의원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뜨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 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단돈 10원도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도와 준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 내 나이 75세 재산세 200여만원에 월 의료보험료 13만원 내며 병원에 한번 가지 않는 편한 영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에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 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둘째 무엇에 써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마시고 병의원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종만할 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층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부터 1주일간은 부산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무나 찜질방 간편 보임. ☎ 전화: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서울 전수도장은 월, 화, 수요일이 상담일입니다) ☎ 02)2216-6278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